

이사람!

사랑으로 빛은 빵
고아원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빵 아저씨」

나용선

“아저씨, 재가 자꾸 끼어 들어요. 야, 너도 봤지. 내가 먼저 온 거... 그거 봐 맞다잖아”
새치기 문제로 가벼운 실랑이를 벌이는 아이를 비롯해 설새없이 재잘대는 아이들의 목소리로 인해 주위가 온통 장날처럼 시끌벅적하다.

갓 구워낸 빵은 오븐에서 나오기가 무섭게 바닥이 나고 두 손에 빵을 받아든 아이들의 표정은 마냥 즐겁기만 하다.

일요일 오전이면 어김없이 되풀이 되는 광경. 얼핏 생각하면 무척 장사가 잘 되는 어느 제과점의 한 장면 같기도 하다. 그런데 곧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아무리 장사가 잘 되는 제과점이라 해도 순식간에 100여개가 넘는 빵이 동이 났다는 것과 온당 있어야 할 값을 치르는 장면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런 궁금증은 이내 쉽게 풀리고 만다. 이곳이 제과점이 아니며 아이들을 껴안아 좋아하는 한 아저씨가 빵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을 갖춰 놓고 매주 일요일이면 찾아와 함께 기쁨을 나누는 어느 고아원이기 때문이다.

굳이 이름을 붙이면 「사랑의 빵집」이라고나 할까.



빵 먹고 싶어 하던 고아원 아이의 모습이 계기

성경의 한 귀절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 모르게 하는 사람 나용선(42세). 그는 이곳 고아원 아이들에게 「빵 아저씨」로 통한다. 일요일이면 하루도 빠짐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찾아와 자신이 준비해온 재료로 빵을 만들어 주고 같이 놀아주는 데서 붙은 이름이다.

나용선씨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지금으로부터 9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민학교 2학년 때 어머니를 잃고 어려운 생활을 하던 그는 국민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을 나와 제과 기술을 배우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갖은 고생을 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9년전 자립하면서 서울 세곡동에 제과점 3개와 분식집, 치킨가게를 포함한 5개의 점포를 가질 정도로 기반을 잡은 그는 어느날 가슴 아픈 장면을 목격하게 됐다.

“수녀님이 고아원생을 데리고 길을 가는데 같이 온 아이가 제과점 안의 여러가지 빵을 보더니 무척 먹고 싶어하는 표정이 역력하더군요.”

일찍 어머니를 잃고 갖은 고생을 한 그로서는 특히 그 모습이 가슴 깊이 남아 있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하던 사업을 자금 사정으로 그만 두게 되었을 때 그때 좋은 일이라도 했으면 표라도 날 걸 하는 후회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만무였다. 미쳤다는 소리에서부터 보따리를 싸고 나가겠다는 등 그의 아내 반대는 무척 심했다.

그도 그럴 것이 연달아 상급 학교에 진학해야 할 아이들이 셋이나 목을 매달고 있는데 다시 2년전부터 「천사의 집」이라는 고아원까지 맡아 시설을 설치하고 매달 빵 재료비로 30만원 가까이를 추내고 있는 실정이었기 때문이었다.

커서 「빵 아저씨」되겠다는 아이들 말에 보람

“싫은 소리 많이 들었죠. 돈이 없을 때는 빌려서라도 재료비를 댔으니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는 일인데 그만 둘 수 있습니까.”

자신의 오토바이 소리만 들리면 빵 아저씨가 왔으며 좋아 뛰어 나온다는 아이들, 다음주엔 이런 빵을 만들어 달라며 눈망울을 반짝이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만 둘 수 없다는 게 그의 말이다.

자신들도 커서 아저씨 같은 「빵 아저씨」가 되겠다는 아이들의 말에서 보람을 느끼며 또한 그것이 그의 즐거움이기도 한 까닭이다.

나용선씨는 작년까지만 해도 매주 일요일 「성심원」과 「천사의 집」 두곳을 차레로 돌며 고아원 아이들에게 빵을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올해 초 그는 그의 아내에게는 ‘갈수록 태산’인 일을 불쑥 저지르고 말았다.

지금까지의 선행이 외부로 알려져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고 올 2월 대통령 취임식에 특별 초청자로 참석한 자리에서였다. 역시 같

사업에 실패하고 다시 제과 기술자로 돌아간 그는 여유가 있어야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4년 전 당시 월급 70만원 중 매달 5만원씩을 아내 몰래 떼어 모은 후 용인군 수지면에 있는 고아원인 「성심원」에 믹서기, 오븐 등 시설을 설치하고 빵을 만들어 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오토바이가 없던 시절 37kg이 넘는 재료를 짊어지고 버스를 타고 가서 다시 20분을 걸어 들어가야 했기 때문이다. 또 원생 100여명과 수녀님을 포함한 많은 인원 몫의 빵을 만드는 일도 5시간이 걸릴 정도로 중노동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안 집에서도 난리였다. 500만원 보증금에 25만원 월세를 사는 형편으로 더 벌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엉뚱한 곳에 돈을 쏟아 붓고 있는 그의 행동이 이해될 리가





이 특별 초청된 「향림 재활원」의 뇌성마비 아이들을 본 순간 대뜸 그는 자신이 늘 말하는 ‘어쩔 수 없는’ 고질병이 발동했다.

그 자리에서 재활원 원장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빵을 아이들에게 만들어 주고 싶다”고 제의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가 빵을 만들어 주는 곳은 모두 세곳, 현재 그는 매주 일요일 세군대를 차례로 돌며 아이들에게 빵을 만들어 주는 일을 비롯해 셋째주, 넷째주 토요일과 매월 말일은 그달에 생일이 있는 아이들을 위해 따로 케이크를 만들어 주고 있다.

한달이면 토요일과 일요일 전부를 빵과 케이크를 만들어 주며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셈이다. 워낙 아이들이 많아 한곳에서만 5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려 오전부터 일찍 시작해도 세곳을 다 돌자면 밤 늦게나 끝난다.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노라하면 허리, 어깨가 안 쭈시는 곳이 없을 정도로 피곤하지만 그는 늘 풍부하게 아이들에게 빵을 주지 못하는 게 안타깝기만 하다.

현재 그의 총 수입은 근무하는 제과점 월급 120만원과 오랜 제과 경력 덕에 삼성기계의 영업부장 역할을 하면서 쇼케이스를 알선해 주고 받는 부정기적인 수입이 전부.

「향림 재활원」이 추가돼 40만원으로 늘어나 자신이 부담해야 할 재료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이뿐이 아니다. 세인들의 무관심이 바로 그것이다.

“내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도와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포장이나 외형

에 문제가 있어 폐기해야 할 밀가루나 프리믹스, 하다못해 버터 등이라도 업체들이 지원해 주면 자기네 홍보도 되고 저는 더 많은 빵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어린이날이나 연말연시에 선심을 쓰듯 단체로 몰려와서 선물 몇가지를 고아원과 양로원에 안겨 주고 함께 기념 촬영을 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과시하는 사람들을 제일 못마땅해 한다. 그럴려면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평소에 도와 주든지 할 것이지 괜한 걸치레로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것이다.

케이크 만들어 1천만원 장학금 조성 계획 중

나용선씨는 꽤 유명 인사다. 그가 하는 일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TV는 물론 각종 매체를 통해 수차례 소개됨에 따라 「빵 아저씨」로 불리는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도 꽤 있다. TV에 출연한 후 격려와 함께 온라인을 통해 후원금을 보내 주겠다는 전화를 500여통이나 받았을 정도이다.

그중에는 자신이 지체 부자유자인데 「향림 재활원」의 뇌성마비 아이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고 있는 것에 감동했다며 성금을 보내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승용차를 회사하겠다는 이도 있었다. 그러나 나용선씨는 승용차만은 거절했다고 한다. 자신이 만들어 준 빵을 손에 쥔 채 그의 오토바이 뒤에 올라 타고 이 시간만은 외롭지 않다는 듯 제 또래의 친구들에

게 자랑하는 고아원 아이들의 즐거움을 뺏고 싶지 않아서였다.

현재 그는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 빵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주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케이크를 2천개 정도 만들어 생긴 수익금으로 1천만원의 장학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그가 출연한 바 있는 KBS TV에서 300개의 케이크를 책임지고 판매해 주겠다는 약속도 받은 상태이다.

2천개의 케이크 판매에서 생긴 수익금은 「성심원」과 「천사의 집」, 「향림 재활원」 원생들의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이라고 한다.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그는 얼마전에 다니던 제과점을 그만 둔 상태이며 12월 8일부터 KBS의 1차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성심원」에서 케이크를 제작 중이다.

지난 4년간 사랑의 손길을 펼쳐온 일명 「빵 아저씨」 나용선씨. 돌이켜 보면 그가 지금까지 보여 온 아이들을 향한 사랑과 씩씩한 나날들로 점철된 수고로움의 크기는 한낱 선행이라는 말로 치부해 버릴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그만큼 그가 쌓아 온 사랑이라는 이름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또 하나의 의미와 미래를 향한 새로운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짐작할 수 있다. 반짝이는 눈으로 자기도 커서 어른이 되면 「빵 아저씨」가 되겠다는 아이들의 말에서 그가 사랑으로 빚은 빵이 다시 사랑으로 이어지리라는 믿음과 예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글·박종선)